



화웨이 차세대 AI 칩 출시 가속

Hana China Weekly | 2026.9.18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화웨이(비상장): 차세대 AI 칩 Ascend 960DT 출시 시점 3개 분기 조기화

- 9/17 차세대 AI 칩 Ascend 960DT 출시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3개 분기 앞당겨 2027년 1분기로 조정하고, NPO 기반 Ascend 960 SuperPoD와 SuperCluster 로드맵을 공개. Ascend 960DT는 연산 성능을 전 세대 대비 약 2배 높일 계획이며, NPO를 적용한 Ascend 960 SuperPoD는 최대 4,096개 프로세서를 연결하도록 설계.
- 화웨이가 다수의 AI 프로세서를 하나의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처럼 연결하는 UnifiedBus 기반 컴퓨팅 아키텍처를 공개. 시스템 단위에서는 최대 100만 개 프로세서까지 하나의 컴퓨터처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Atlas 950 SuperCluster는 25.6만 장의 컴퓨팅 카드로 구성. 차세대 Atlas 960 SuperPoD는 최대 4,000개 프로세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개별 칩 성능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시스템 확장으로 전체 AI 컴퓨팅 성능을 보완하는 전략 강화.

Z.AI(2513.HK): 연말 ARR 가이드نس 25% 상향

- 9/16 SCMP에 따르면 Z.AI는 연말 ARR 가이드نس를 기존 약 24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25% 상향. 올해 현재까지 ARR은 1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약 20억달러 규모 H주 배정과 30억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50억달러의 자금 확보를 추진. Z.AI는 신규 자금을 모델 훈련과 AI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 컴퓨팅 파워 공급이 매출 성장의 주요 제약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

CATL(300750.CH): 완성차 업체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로 주가 약세,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

- CATL 최근 주가 부진은 1)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2) 중국 정부의 신규 배터리 증설 규제 강화, 3) 9월 생산량 감소 루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이 CATL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7월 발표한 200~40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따라 추가 매입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Z.AI

상장 국가

중국 본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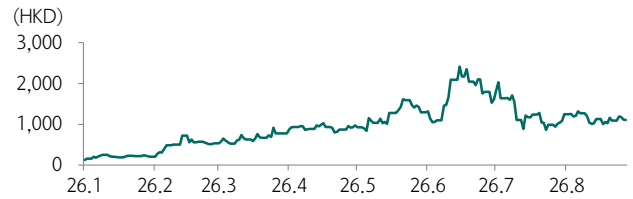
섹터

IT 서비스 및 컨설팅

시가총액(조원)

88.4

최근 주가 추이



전환사채 발행, 50억달러 조달 착수

- 9/11 로이터에 따르면 Z.AI가 홍콩에서 신주 배정과 전환사채로 함께 약 50억달러 조달에 착수. 신주는 2,197만 주를 주당 714홍콩달러(9/11 종가 793홍콩달러 대비 10% 할인)에 배정해 약 20억달러를 조달하고, 별도로 201.4억위안(약 30억달러) 규모의 제로쿠폰 전환사채를 발행. 7월 약 40억달러 조달에 이은 두 달 만의 두 번째 대형 조달로 자금은 차세대 모델 R&D와 컴퓨팅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 다만 대규모 조달과 희석 우려에 주가는 -7%대로 5개월여 만의 최저.

연말 ARR 가이드선 25% 상향

- 9/16 SCMP에 따르면 Z.AI는 연말 ARR 가이드선을 기존 약 24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25% 상향. 올해 현재까지 ARR은 1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약 20억달러 규모 H주 배정과 30억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50억달러의 자금 확보를 추진. Z.AI는 신규 자금을 모델 훈련과 AI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 컴퓨팅 파워 공급이 매출 성장의 주요 제약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

딥시크(비상장)

'DeepSeek V4.1 Flash' 공식 출시

- 9/10 DeepSeek V4.1 Flash를 공식 출시. 총 5,520억개 파라미터의 MoE 모델로 입력과 출력의 활성 파라미터를 각각 80억개와 160억개로 차등 적용한 Causal Encoder-Decoder 구조를 도입했으며, 자체 벤치마크에서 기존 주력 모델 V4 Pro를 상회. KV Cache를 이전 세대 대비 축소해 HBM 사용량을 1/4, SSD 사용량을 1/8로 낮췄으며 API 가격도 인하. 특히 캐시 적중 비용 비중이 높은 AI Agent 환경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며 중국 AI 모델의 가격 경쟁이 재차 강화되는 모습.

과창판 상장 가능성 검토, CFO 영입

- 9/15 Reuters에 따르면 딥시크가 첫 CFO로 GL Ventures 파트너 Yan Wentao를 영입할 예정. 딥시크는 상하이 과창판 상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CITIC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짐. 연구 중심 조직에서 자본시장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향후 IPO 기대가 재차 부각.

엔트로픽의 AI 개발 속도 조절 반박

- 9/15 SCMP에 따르면 DeepSeek V4.1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 류성위가 엔트로픽과 OpenAI의 AI 개발 속도 조절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 그는 미국 폐쇄형 AI 업체가 최첨단 AI와 AGI를 독점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첨단 AI는 개방적이고 저렴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 특히 Anthropic이 최첨단 AI를 독점하는 상황을 나치 독일의 핵무기 선점에 빗대 강하게 비판.

AI 소프트웨어

바이트댄스(비상장): 상반기 매출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감소

- 9/15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매출은 1,200억달러로 YoY 약 +30%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약 200억달러로 전년 대비 한 자릿수 감소. TikTok의 해외 광고와 이커머스 사업 성장이 매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 반면 AI 모델 개발과 클라우드, 자체 추천칩 등 AI 관련 투자 확대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순이익률은 약 16.7%까지 하락. Douyin이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TikTok 중심의 해외 사업 비중이 2024년 25%, 2025년 30%에서 2026년 상반기 30% 이상으로 높아지며 해외 성장 기여도가 확대되는 흐름.
- 9/14 스마트폰 AI Assistant 'Doubao Phone Assistant' 소비자 버전을 공식 출시. Doubao App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OS 레벨에서 연동해 음성 호출, 화면 인식, 로컬 검색, 크로스앱 작업 수행 등을 지원하며, 첫 탑재 모델은 9/16 출시 예정. AI Agent 기능을 스마트폰 OS와 직접 결합하며 소비자 AI 생태계 확대가 부각되는 모습.
- 9/16 SCMP에 따르면 AI 기반 숏드라마 플랫폼 Hongguo의 7월 DAU가 1.68억명으로 YoY +107% 증가하며 iQIYI, Tencent Video, Youku, Mango TV의 합산 DAU 약 1.55억명을 상회. 무료 시청과 광고 기반 수익모델에 바이트댄스 추천 알고리즘을 결합한 가운데, Seedance 등 AI 영상 모델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숏드라마 공급 확대가 이용자 증가를 견인. 전통 장편 스트리밍에서 숏드라마와 AI 기반 콘텐츠로 이용시간이 이동하면서 바이트댄스의 콘텐츠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

징둥(9618.HK): 국산 GPU 업체와 10만장 컴퓨팅 클러스터 건설 계획

- 9/9 징둥클라우드가 무어스레드 등 국산 GPU 업체와 1만 장급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향후 10만 장급 국산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대규모 모델 학습과 피지컬 AI 등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자체 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징둥의 AI 투자 확대와 중국산 GPU의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적용이 함께 부각되는 모습.

AI LLM: AI 기술 안정성 우려에 중국 LLM 기업 추가 하락

- 9/14 앤트로픽과 OpenAI 등 미국 프론티어 AI 모델 업체 경영진이 AI 기술의 안전성 우려를 강조하며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자 글로벌 AI 관련주 투자심리 악화. 홍콩 상장 LLM 업체 중 MiniMax(0100.HK)는 6.5% 하락했으며, Z.AI(2513.HK)는 20억달러 규모 신주 배정과 30억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총 50억달러 자금조달 추진에 따른 희석 우려까지 겹치며 낙폭 확대. 미국 프론티어 모델 업체의 AI 안전성 경고와 중국 LLM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맞물리며 관련주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모습.

AI: 미국 프론티어 모델 종류 주장에 반박

- 9/16 SCMP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프론티어 모델을 '산업적 규모'로 종류했다는 미국 측 주장이 사실·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 앞서 미국 정부는 DeepSeek·알리바바 등 6개 중국 기업이 미국 첨단 AI 모델을 대상으로 공격적·표적화된 종류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상무부도 9/10 모델 종류는 글로벌 AI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종립적 기술이라고 반박한 바 있음. 인민일보는 미국이 해당 의혹을 중국 AI 기업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중국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9/24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기술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재차 부각되는 모습.

화웨이(비상장)

차세대 AI 칩 Ascend 960DT 출시 시점 3개 분기 조기화

- 9/17 차세대 AI 칩 Ascend 960DT 출시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3개 분기 앞당겨 2027년 1분기로 조정하고, NPO 기반 Ascend 960 SuperPoD와 SuperCluster 로드맵을 공개. Ascend 960DT는 연산 성능을 전 세대 대비 약 2배 높일 계획이며, NPO를 적용한 Ascend 960 SuperPoD는 최대 4,096개 프로세서를 연결하도록 설계. 개별 칩 성능 제약을 대규모 시스템 확장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구체화되며 9/17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6.7%)와 비렌테크(6082.HK, +3.0%) 등 중국산 AI 칩 관련주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UnifiedBus 기반 컴퓨팅 아키텍처 공개

- 9/17 화웨이가 다수의 AI 프로세서를 하나의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처럼 연결하는 UnifiedBus 기반 컴퓨팅 아키텍처를 공개. 시스템 단위에서는 최대 100만 개 프로세서까지 하나의 컴퓨터처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Atlas 950 SuperCluster는 25.6만 장의 컴퓨팅 카드로 구성. 차세대 Atlas 960 SuperPoD는 최대 4,000개 프로세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개별 칩 성능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시스템 확장으로 전체 AI 컴퓨팅 성능을 보완하는 전략 강화.

AI 수요 확대 대응, 수직적층형 3D 데이터센터 공개

- 9/15 안후이 우후에서 AI 연산 수요 확대에 대응한 3D 데이터센터를 공개. 냉각, IT 장비, 전력, 배터리 설비를 4개 층으로 수직 배치해 초대형 AI 클러스터의 공간과 전력, 냉각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 화웨이는 초대형 모델과 토큰 사용량 증가에 대응해 향후 10만 장 이상 Ascend 가속기로 구성된 초대형 클러스터가 기본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

미국 법원, 화웨이 스마트폰 테스트 로봇 'Tappy' 기술정보 확보 시도 주장

- 9/17 SCMP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화웨이의 공갈 및 영업비밀 탈취 관련 형사재판에서 미 검찰은 화웨이가 T-Mobile의 스마트폰 테스트 로봇 'Tappy' 기술정보 확보를 시도했다고 주장. 검찰은 미국과 중국 소재 화웨이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로봇의 기술 사양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 Tappy는 스마트폰 화면의 탭·스вай프·타이핑을 자동화해 출시 전 품질을 테스트하는 장비.

반도체

CXMT(688825.SH): 중국 플래그십 스마트폰 적용 확대

- 9/17 SCMP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을 배경으로 CXMT의 고성능 모바일 DRAM이 중국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용 확대 중. ZTE 산하 누비아의 NaviX Ultra는 CXMT의 최대 10,667Mbps LPDDR5X를 탑재했으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기존 공급망에서 국산 메모리 채택을 늘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CXMT의 모바일 DRAM 경쟁력이 중저가 제품을 넘어 플래그십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사상 최고치 기록

- 9/14 Omdia에 따르면 2Q26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4,250억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QoQ +31.4%로 1Q26의 +29.2%를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성장률을 기록. 1H26 누적 매출은 7,520억달러로 집계. 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강세가 시장 성장을 주도했으며, 특히 DRAM·NAND를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이 성장을 견인. Omdia는 최근 4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QoQ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3Q26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국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업체 점유율 빠르게 상승

- 9/14 전자신문은 2025년 기준 중국산 반도체 장비 점유율이 판매액 기준 약 23%, 팹 설치 대수 기준 35%까지 상승했다고 보도. 설치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25%에서 10%p 확대됐으며, 식각과 증착, 세정 등 중국 업체 경쟁력이 높은 장비를 중심으로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 미국의 대중 장비 수출 규제와 글로벌 장비 납기 장기화가 맞물리며 중국 팹의 국산 장비 도입 확대가 이어질 전망.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무상증자 권리락 적용 완료

- 9/15 1주당 2주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적용. 일루바타코어엑스는 8/20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1주당 2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안을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총 발행주식 수는 기존의 3배로 증가.

AI 인프라

캠브리콘(688256.SH): 차세대 AI 가속기 690 가격 최대 30% 인상

- 9/10 차세대 AI 가속기 690의 가격을 기존 견적 대비 20~30% 인상. 화웨이도 차세대 어센드 950DT 가격을 25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중국 AI 칩 업체 전반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미국의 대중 HBM 수출 제한과 글로벌 HBM 공급 부족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 국산 AI 칩 수요가 확대되며 중국 AI 가속기 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지는 모습.

광모듈: 골드만삭스, 광모듈 수요 전망치 상향

- 9/14 골드만삭스는 2027년과 2028년 800G 이상 고속 광모듈 수요 전망치를 기존 대비 각각 39%, 36% 상향한 1.44억개, 1.71억개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짐. 2027년 1.6T 광모듈 가격은 7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800G 가격 하락폭도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능력이 핵심 제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DSP·레이저·PCB 등 핵심 부품 공급이 2027년 출하 확대의 주요 병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9/16 중국 광모듈/CPO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TFC(300394.SZ) +6.1%로 마감했으며 중지쉬창(300308.SZ), EOPTOLINK(300502.SZ)도 장중 각각 +5.8%, +7.8%까지 상승. ACCELINK(002281.SZ)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섹터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

상원테크(300209.SZ): 연간 서버 장비 및 부품 구매 예산 확대

- 9/15 이사회에서 2026년 서버 장비와 부품 구매 예산을 기존 최대 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 기존 대비 130억원 증액으로, AI 컴퓨팅과 크로스보더 디지털 무역 사업 확대에 필요한 서버 확보 목적. 다만 해당 안건은 아직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해 200억원안은 확정 집행액이 아닌 연간 최대 구매 예산. 대규모 컴퓨팅 수요 확보에 맞춰 서버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흐름.

AI 인프라: 중국 연간 토큰 사용량 2030년 3,500억개로 확대 전망

- 9/12 중국 컴퓨팅 파워 대회에서 중국공정원 우허취안 원사가 China Telecom 연구원 전망을 인용해 중국의 연간 Token 사용량이 2026년 10억억개에서 2030년 3,500억억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AI Agent 확산으로 Token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3~5년간 중국 내 AI 컴퓨팅 수요가 공급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추론 중심의 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도 커지는 상황.

PCB: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

- 9/15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정보 제조업 발전 15차 5개년 계획>에서 고밀도 PCB와 첨단 패키지 기판 기술을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한 영향으로 홍콩 PCB 관련주 강세. 델톤 테크놀로지(1989.HK) +2.4%, 킹보드(0148.HK) +3.9%, 서킷 파블로지(9630.HK) +3.7%, 빅토리 자이언트(2476.HK) +1.6% 상승. 정책 지원과 AI 서버용 고다층 PCB 수요 확대 기대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CATL

상장 국가

중국/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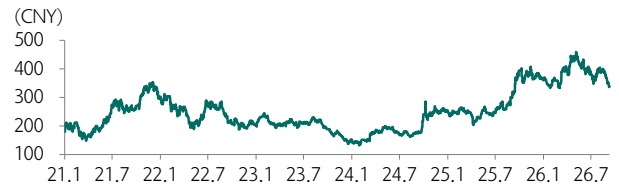
섹터

이차전지

시가총액(조원)

276.6

최근 주가 추이



A/H주 주가 이틀간 9% 급락

- CATL 최근 주가 부진은 1)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2) 중국 정부의 신규 배터리 증설 규제 강화, 3) 9월 생산량 감소 루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다변화, 신규 ESS 배터리 증설 규제가 원인

- 완성차: 최근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처를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음. 샤오미는 9월 CALB 및 Sunwoda와 자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했고, 9/7 리오토 역시 자체 개발 배터리를 하반기부터 전 차종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공급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CATL의 고객 기반은 이미 다변화되어 있고 샤오미/리오토가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한 자리 수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CATL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CATL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해왔음에도 CATL의 중국 동력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8월 41%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 정부 규제: 9/7 중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과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ESS 배터리 프로젝트 건설 승인을 일시 중단. 단기적으로는 신규 증설 제한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가동률(1H26 95%)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CATL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 생산량: CATL의 9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통상 9월은 성수기로 생산량이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감산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 다만, 이는 동박 등 일부 원재료의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일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량 감소가 최종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확실.

현재 이슈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

- 중장기적으로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이 CATL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7월 발표한 200~40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따라 추가 매입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차전지

CATL(300750.CH): 상용차 배터리 Tectrans II 공개

- 9/14 독일 IAA Transportation 2026에서 차세대 상용차 배터리 Tectrans II 공개. 대형 트럭용 모델은 최대 1,000km 주행거리를 지원하며, 메가와트급 급속충전을 통해 25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 에너지밀도는 170Wh/kg, 시스템 왕복효율(RTE)은 96%이며, 설계 수명은 12년·150만km. 또한 DHL과 유럽 친환경 화물 운송 회랑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기 상용차 공동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

CATL(300750.CH): 이집트 배터리 제조업체 BME와 계약 체결

- 9/16 이집트 배터리 제조업체 BME와 협력 계약을 체결, 이집트 현지 배터리팩 조립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팩 기술 라이선스, 생산설비 및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 해당 공장은 BME가 전액 투자해 건설하며, 연간 생산능력은 1GWh 계획, 장기적으로는 5GWh까지 확대할 것.

CATL(300750.CH): 쓰촨성에 4만톤 규모 탄산리튬 생산 프로젝트 건설 계획

- 9/17 CATL은 14억위안을 투자해 쓰촨성 야안에 연산 4만톤 규모의 신규 탄산리튬 생산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 이외 인산이수소리튬 3만톤, 황산나트륨 13만톤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 현재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1차 공시 단계로 착공 및 가동 시점은 미정.

CATL(300750.CH): CATL 충칭 야오닝 신에너지기술의 지분 인수, 장기적으로 30GWh 생산능력 구축 계획

- 9/15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CATL은 Geely가 투자한 배터리 기업 충칭 야오닝 신에너지기술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 이번 거래는 반독점 심사를 조건 없이 통과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배터리 산업의 통합·재편을 지원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 충칭 야오닝은 2021년 Geely Technology Group과 Farasis Energy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이후 Farasis가 철수하면서 Geely 산하로 편입. 해당 공장은 배터리 셀·모듈·팩의 R&D 및 생산을 담당하며, 장기적으로 연산 30GWh의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 현재 1단계 18GWh 프로젝트가 승인돼 건설 중이며, 2026년 12월 시험생산을 시작해 2027년 1분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 완전 가동 시 연간 생산액은 약 100억위안에 달할 전망.

산업재/원자재

양광전력(300274.CH): 인버터, ESS 전제품 가격 5~15% 인상

- 9/11 양광전력은 9/20부터 인버터, 에너지저장 컨버터(PCS) 및 ESS 전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한다고 발표. 이는 양광전력 올해 두 번째 가격 조정. 양광전력은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며 악성 저가 경쟁 억제를 위한 것으로 밝힘. 1Q26 양광전력과 Ginlong Technologies 등 주요 인버터 업체들이 ESS 전용 제품 가격을 6~10% 인상한 바 있음.

구리: 미국 구리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 자금광업 추가 하락

- 9/10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며 구리 선물 가격이 하락했고, 이에 자금광업(601899.CH) 주가도 9/11 5% 하락. 최근 구리 가격은 정제 구리뿐 아니라 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기대와 신규 관세 시행을 앞둔 재고 비축 수요가 맞물리며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음. 기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27년 1월부터 구리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2028년부터 이를 30%로 인상할 예정.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가스터빈: 중국 가스터빈 업체,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공급 부족 수혜 누리기 어려운 상황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은 대부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체 발전설비를 구축 중. S&P Global에 따르면, GE Vernova, Siemens Energy, Mitsubishi Power가 전 세계 설치된 대형 가스터빈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2030년 이전에 가스터빈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가스터빈에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장기간의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움. 중국 업체들도 가스터빈 국산화 및 대형화를 추진 중이나, 글로벌 선도 업체 대비 대형 가스터빈의 상용화 경험과 해외 레퍼런스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전기차

전기차: 스마트 전기차 로드맵 발표,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대규모 보급 추진

- 9/11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스마트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보급을 추진하고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표. 중국 정부는 글로벌 판매량 기준 Top 10에 진입하는 완성차 업체를 다수 육성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인간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 또한 자동차 생산·도로 안전·자율주행·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핵심 부품 및 소량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도입을 검토할 예정.

전기차: BYD, 샤오미 경영진 시진핑 미국 방문 동행 가능성

- BYD, 샤오미, 중지쉬창 경영진이 시진핑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보도되며 9/17 자동차 부품주 및 전기차 테마주가 소폭 반등.

전기차: 중국 전기차 침투율 2030년 80% 예상

- 시노펙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2030년 75~80%에 달할 것으로 전망.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2020년 5%, 2025년 53%, 2026년 7월 65%로 빠르게 상승.

BYD(1211.HK): 2027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 차량 공개

- 9/14 BYD는 2027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공개하고 약 1,000대 규모의 소량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 전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동평자동차(600006.CH): 올해 10월 반고체 배터리 공개

- 동평자동차는 올해 10월 에너지 밀도 350Wh/kg의 반고체 배터리 공개, 4Q26부터 양산 차량에 탑재 예정. 동평은 올해 말까지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실증 차량 100대를 투입하고, 2027년에는 자체 개발 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5만대를 인도할 계획.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 전후 소규모 양산을 시작하고 2035년 대규모 양산 및 본격적 보급 추진 계획.

샤오핑(XPEV.US): 홍콩 메가와트급 충전소 개소

- 9/16 샤오핑은 홍콩에서 전 세계 최초의 X-Energy 메가와트급 충전소를 개소. 홍콩 충전 사업자 Halo와 공동 구축했으며, 모든 브랜드 차량에 개방. 최대 출력 1MW, 최대 전류 1,000A를 지원하며 400kWh 규모의 ESS를 탑재. ESS를 활용해 충전소의 계통 수전 용량을 240kW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고비용의 배전망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음. 향후 X-Energy 충전소를 유럽에도 도입할 예정이며, ESS·10C 초고속 충전·AI 감지 기능을 결합해 최대 1MW의 출력을 제공할 계획. 샤오핑은 유럽 13개국에 1,000개 이상의 자체 운영 초고속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샤오펑(XPEV.US): 해외 완성차 업체로 기술 공급 확대 계획

- 샤오펑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기존 파트너인 폭스바겐을 넘어 해외 완성차 업체로 기술 공급을 확대할 계획. 공급 기술에는 전기·전자(E/E) 아키텍처, 콕핏 시스템, Turing AI 칩,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 2023년 7월 폭스바겐은 약 7억달러를 투자해 샤오펑 지분 4.99%를 인수했으며, 양사는 전기차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전자 아키텍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샤오펑은 올해 1~2분기 적자를 지속했으나, 폭스바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서비스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립모터(9863.HK): 상반기 해외 PHEV 출시 계획, 2027년 해외 판매 40만대 목표

- 립모터는 2027년 상반기 해외에서 PHEV 출시 계획. 현재 립모터 제품은 BEV와 EREV로 구성되어 있고 PHEV 개발 투자를 확대해 해외 제품 라인업을 넓힐 예정. 구체적인 모델과 출시 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경영진은 2026년 해외 판매량을 20만대로 전망, 2027년 해외 판매 목표를 40만대로 제시.

광저우자동차(601238.SH): 중국 FAW Toyota 지분 인수 계획

- 9/15 광저우자동차는 중국 FAW와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공시. 광저우자동차는 신주 발행을 통해 FAW가 보유한 자동차 제조 합작법인(JV) 지분 일부를 인수할 계획이며, 현지 언론은 해당 JV가 FAW Toyota인 것으로 보도. 거래 완료 후 FAW는 광저우자동차의 2대 주주가 될 전망. 현재 광저우자동차 A주는 거래정지 상태이며, 거래정지 기간은 최대 10거래일을 넘지 않을 예정. 광저우자동차는 이번 거래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과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 간 산업 자원을 통합하고 상장사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군사적 활용에 속도

- 중국이 휴머노이드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 군사기관들은 휴머노이드가 실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 중이며 궁극적으로 전시에 이를 배치할 계획.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전장 투입 움직임은 2025~2026년 들어 본격화됐으며, 현재 개발은 로봇의 인지, 조작 능력 및 훈련 데이터에 집중. 중국에서 휴머노이드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 인민해방군은 2025년 5월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 입찰을 실시, 올해 6월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카메라·레이더·모션 데이터의 수집 및 라벨링 시스템 개발에 약 30만USD 예산을 배정. 8월, 중국 국유 방산업체 노린코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Fuxi 공개. 이는 경계 임무, 전천후 정찰, 지능형 순찰 및 위험 임무 수행이 가능.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규제당국, IPO 추진 휴머노이드 기업 승인 기준 강화

- 유니트리 주가는 상장 첫 날 5배 이상 급등 후, 하락세 지속 중, 이에 중국 규제당국은 IPO를 추진하는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에 대한 승인 기준을 강화 중.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 IPO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매출 창출 능력을 입증하고 적자 축소 추세에 진입했거나,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달성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원가 하락 속도 예상보다 빠름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원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 하모닉 감속기 가격은 2025년 1,000위안에서 현재 300~800위안으로 하락, 유성 롤러 스크류 가격은 2025년 1,000위안에서 현재 200~800위안으로 하락.

샤오펑(XPEV.US): Iron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 가동 시작

- 9/8 샤오펑은 Iron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발표. Iron은 조립 완료 후 스스로 생산라인을 걸어 나왔으며, 핵심 공정의 80% 이상이 자동화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한 것은 아니며, 올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 2027년 공식 출시 및 중국·해외 시장 인도를 개시할 계획.

유비테크(9880.HK): 휴머노이드 스마트 팩토리 생산 개시

- 9/12 유비테크의 류저우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생산 개시. 해당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1만대 이상으로, Walker S와 Cruzr 시리즈를 주로 생산하며 조립라인에서 10분당 1대 생산 가능. 유비테크는 Siemens와 협력해 디지털 제조 솔루션을 구축했으며, 양사는 생산 스케줄링·자재 운송·창고 관리 등 생산 전 과정을 관리하는 Yanshee MOM 시스템을 공동 개발. 또한 해당 공장에서는 로봇이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생산체계를 구축. Cruzr Y1과 Cruzr S2가 디팔레타이징·팔레타이징을 담당하고, 인간 작업자와 협업해 적재 및 운송 작업도 수행

WeRide(0800.HK): 스페인 L4 자율주행 운행 허가 획득

- 9/10 WeRide와 Uber, Moove Cars Group의 자율주행 사업부 AVOMO는 스페인 최초의 L4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를 획득. 이번 승인은 스페인 최초의 국가 단위 L4 로보택시 운행 허가로, 향후 상용 서비스 출시를 위한 핵심 규제 요건을 충족. 마드리드는 WeRide와 Uber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적용되는 네 번째 도시로, 양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5개 도시로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수만 대의 차량을 배치할 계획. WeRide-Uber-AVOMO는 2026년 중 마드리드에서 일반 이용자 대상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5.7)	20.4	86.4	484.7	62.6	9,022.5	76.7	49,162.6	0.0	2026-11-19
기가디바이스(603986.CH)	(0.5)	22.8	43.7	184.4	29.6	606.2	44.1	618.4	11.1	2026-10-28
캠브리콘(688256.CH)	5.4	109.4	37.7	170.5	115.6	193.2	99.0	190.9	0.0	2026-10-19
해광정보(688041.CH)	0.5	117.2	17.6	56.4	45.5	81.7	63.0	81.8	0.1	2026-10-15
비렌테크(6082.HK)	(8.4)	-	(0.7)	141.5	272.5	적지	흑자	적지	(0.2)	2027-03-30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17.3	-	(9.7)	183.0	157.7	적지	흑자	적지	(3.1)	2027-03-30
북방화창(002371.CH)	5.0	61.6	17.3	27.6	31.7	37.8	49.5	36.7	0.0	2026-10-30
AMEC(688012.CH)	6.0	71.1	16.1	36.8	39.6	107.5	20.9	171.4	0.0	2026-10-29
SMIC(0981.HK)	(1.2)	46.0	5.9	26.8	19.9	106.8	28.4	100.1	(1.1)	2026-11-13
JCET(600584.CH)	1.9	53.0	7.4	12.8	15.0	46.5	42.2	56.6	2.7	2026-10-23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2.3	59.6	23.4	39.2	51.2	78.8	45.0	75.5	10.2	2026-10-30
빅토리아언트(300476.CH)	(1.8)	26.4	26.5	65.9	79.3	89.7	94.6	73.1	(0.6)	2026-10-27
중지쉬창(300308.CH)	(3.2)	31.8	62.2	172.0	89.0	202.9	89.3	185.5	0.9	2026-10-30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4)	21.4	31.2	63.3	37.4	74.0	34.0	71.0	0.0	2026-10-29
즈푸AI(2513.HK)	(7.5)	-	(0.6)	719.8	200.1	적지	적지	적지	(0.1)	2027-03-31
알리바바(BABA.US)	(0.7)	16.9	8.2	10.4	12.4	(15.4)	47.8	109.8	(0.6)	2026-11-25
텐센트(0700.HK)	(0.6)	12.4	18.7	9.9	9.4	2.6	6.0	24.2	(0.1)	2026-11-13
바이두(BIDU.US)	(1.5)	15.8	4.2	(1.4)	6.2	100.5	22.6	(14.8)	(0.3)	2026-11-18
레노버(0992.HK)	9.6	15.9	36.8	28.0	17.8	55.0	74.2	71.8	0.0	2026-11-16
샤오미(1810.HK)	(0.8)	22.2	8.8	(4.2)	18.6	(36.1)	22.9	(19.4)	(0.3)	2026-11-16
유비테크(9880.HK)	1.7	-	(4.6)	96.3	45.7	적지	흑자	적지	0.1	2027-03-31
BYD(1211.HK)	1.6	15.8	14.6	11.7	11.2	18.6	28.5	28.4	(0.4)	2026-10-30
CATL(300750.CH/3750.HK)	(7.9)	16.3	24.7	46.5	22.2	32.9	24.1	39.3	0.0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0.3	13.0	24.3	2.3	20.7	3.7	24.1	6.4	0.0	2026-10-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7.3	20.4	16.5	31.6	26.6	56.3	39.1	50.0	(0.4)	2026-10-29
허사이트크(HSAI.US)	(2.3)	38.4	5.7	42.4	41.1	16.0	70.6	2.1	0.0	2026-11-11
중천과기(600522.CH)	11.4	17.9	17.1	23.6	15.3	162.1	41.3	121.6	0.0	2026-10-27
사원전기(002028.CH)	(0.4)	25.7	22.9	31.2	30.4	31.6	38.2	30.7	(0.6)	2026-10-19
동방전기(600875.CH)	(5.2)	18.4	10.1	11.4	9.1	32.8	26.7	26.6	0.0	2026-10-30
평균	0.6	35.6	19.7	93.9	52.9	444.3	46.1	2,052.0	0.6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